

# 폐허의 맥주공장, 예술 생산하는 '문화 양조장' 부활



나눔·교류·소통

공유 경제,  
문화 예술을 입다

3 쿨투어 브라우어라이·페퍼베르크

베를린 = 김미은기자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오랫동안 새로운 건물, 높고 화려한 첨단 시설을 짓는 데만 몰두해 왔다. 다행히 몇 년전부터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공간들이 멋진 문화시설로 탈바꿈한 국내의 성공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좀 더 많은 이들이 버려진 공간의 활용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유럽이나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오래전부터 '버려진 공간'에 주목했다.

지난달 돌러본 베를린의 170년된 맥주 공장들 역시 옛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한 채 전혀 다른 문화·생활 공간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있었다.

◇갤러리부터 슈퍼마켓까지 '쿨투어브라우어라이'

옛 동베를린에 위치한 쿨투어브라우어라이(KulturBrauerei)는 슐트하이스가 1842년부터 1967년까지 운영한 맥주공장이다. 통일 후 유럽적 끝예 콘서트장으로 변신했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 5000만 유로를 투자, 현재의 복합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노란 벽돌과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20여동의 건물, 푸른 하늘과 어우러진 높은 굴뚝 등 쿨투어 브라우어라이는 건물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 안내를 맡은 총괄 매니저 스테파니 그로나우씨가 "산업혁명 이후 조성된 가장 멋진 건물"이라고 자랑할 만했다. '콘스트 브라우어라이'를 우리말로 풀면 '문화양조장'이라는 뜻이다. 현재의 역할에 안성맞춤인 이름이다.

현재 이곳은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이 공존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이 입주해 있고, 공연장, 갤러리, 영화관, 대형 슈퍼마켓, 여행사, 레스토랑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문화 향유와 일상 생활이 어우러진 공간인 셈이다.

맥주통을 보관하던 곳은 영화관으로 변신했다. 티켓 등을 판매하는 영화관 로비는 한국의 멀티플렉스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천정 등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독특한 느낌을 준다. 총 8개의 스크린을 갖고 있으며 초기에는 예술영화들을 주로 상영했지만 요즘에는 시민들의 요구로 할리우드 영화를 주로 상영 중이다.

또 발전소였던 공간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 무대로, 기계실은 연극 공연 등을 진행하는 200명 규모의 소극장으로 탈바꿈했다. 맥주병을 세척하던 공간은 결혼식이나 파티 등 이벤트성 행사장으로 쓰이고 있으며 외부기관에 대여를 해주고 있다.

한해 이곳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는 200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 자체 기획 보다는 외부 단체에 대여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새해와 부활절 등 1년에 3차례는 입주 업체 전체가 대규모 축제를 기획한다.

특히 쿨투어브라우어라이는 지역 자체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1980년대까지 이곳은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젊은이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또 인근에 작은 공연장이 많이 생기면서 쿨투어브라우어라이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장과 작품을 연결하고 소통시키는 문화 네트워크 역할도 하고 있다.

이곳 입주 단체 '탐바잠바'는 특히 전세계에 알려진 문화 관련 사회적 기업이다.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술, 음악, 연극 등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 최대 맥주공장 중 하나를 재생시킨 '쿨투어 브라우어라이'는 공연장 등 문화관련 시설과 슈퍼마켓, 레스토랑 등 상업 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이다.

총괄팀장 타티아나 티츠씨는 "이곳에 입주한 것은 작은 임대료가 가장 큰 메리트였고, 무엇보다 주민과 가까이 호흡할 수 있어 좋다"며 "장애와 비장애 구분을 두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장애인의 참여가 높아져 그들이 참여한 작품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1998년 리모델링 당시 정부는 총 2만5000㎡ 가운데 6000㎡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문화 관련 시설로 채워야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재정난'이라는 암초에 부딪히면서 변화의 궤를 꺾고 있다. 상업적 공간이 점점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문화 관련 공간은 초창기보다 대폭 줄어든 5300㎡에 불과하고 42개 입주 업체 가운데 문화 예술 관련 단체는 12개다. 현재 문화예술관련단체에게는 ㎡당 3유로(상업공간 ㎡당 25유로)의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주고 있지만 조만간 임대료를 올릴 예정이다.

스테파니 그로나우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는 "지금까지는 문화 시설과 상업 시설 등이 잘 공존해왔고, 상업시설 등이 재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관객도 늘면서 시너지 효과도 있다"며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문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문화적 활동 역시 위축되는 게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와 함께 '페퍼베르크'

차로 5분 정도 떨어진 페퍼베르크(Pfefferberg)는 옛 동독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공장이다. 1841년부터 1921년까지는 맥주공장였고, 이후 초콜릿 공장 등으로 활용됐었다. 1991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아틀리에 연극 공연장, 갤러리, 교육 공간, 유스호스텔, 레스토랑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예술가의 집'이라 불리는 공간은 화가들이 거주하며 작업하는 아틀리에로 모두 14개가 갖춰져 있다. 또 건축 전문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실 갤러리 마인 블라우 갤러리는 1년에 10~15차례 저렴한 대관료



쿨투어 브라우어라이의 옛 모습.



맥주공장이었던 페퍼베르크에 위치한 건축 전문 갤러리 모습.

아틀리에·갤러리·영화관 등 문화+상업시설 공존  
예술가·주민·기업 함께 쓰는 통합 문화공간 변신  
문화·언어 교육으로 사회 환원...쇠락의 도심 '활기'

(1주일에 350유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또 페퍼베르크 입구에는 250석 규모의 실내 공연장과 150석 규모의 야외 공연장도 들어서 있다.

약 1만3000㎡ 달하는 공간의 운영 주체는 (재)페퍼베르크다. 재단은 지자체가 소유한 공간을 위탁받아 초창기인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운영권을 얻었다. (재)페퍼베르크가 재단을 포함, 문화행

사 컨설턴트, 일자리 창출, 사회적 교육 관련 등 5개 단체(업체)와 함께 모든 사업을 고민하며 진행하고 있다.

페퍼베르크는 정부로부터 100년간 공간 소유권을 받은 대신 지원금은 일체 받지 않는다. 임대료와 대관료, 기부금이 주수입원으로 흑자를 내고 있다. 타 지역의 재생공간들과 차별화 되는 지점이다.

페퍼베르크의 가장 큰 특징은 적극적인 지역사회 환원이다. 자연보호, 문화재, 문화 활동 지원, 노인·어린이 복지, 국민교육 등 6개 분야 교육프로그램으로 건당 최대 6000유로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올해 지원액 규모는 19만유로에 달한다. 또 일선 학교와 연계해 현장에서 실습하고 체험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총괄 매니저 울리케 페이씨는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정 확보를 위해 상업적인 공간으로도 임대해 주고 있다"고 밝히고 "문화, 언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mekim@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비스표등록증  
등록번호 41-0241299호  
5-18낙지

## 낙지의 명가 5.18낙지

# 체인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 061-375-2383

HP. 010-6656-0002

상표등록 : 41-0241299호